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부활 제5주일



“행복을 싣고 달리는 버스 기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4-35)

월간 레지오 마리아 4,5월 호에 시내버스 기사인 시몬 씨,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을 실천한 분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몬 씨는 버스 기사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내용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버스, 안전과 친절로 기다려지는 버스, 그래서 버스 안에서 복음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운전할 때마다, 버스 운전이 즐거웠고 매일 시민을 만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타시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차를 세우고 승하차를 직접 도와드립니다.

지난 성탄에는 산타 기사로 선발되어 승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며 주님의 도구로 성탄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했고, 기쁜 성탄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더없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그으며 운전대에 오릅니다. “주님 저의 말과 행동이 당신을 세상에 내어주는 사랑의 활동이 되게 해 주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의 살아 있는 표지는 구체적인 사랑 실천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일상의 순간순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실천은 지금 현재 여기서 현실적인 것입니다. 작은 사건과 누구든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신앙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에페 5,2)

끝으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요한 1서 4,7-18)는 말씀에 따라 살아온 시몬 씨처럼 우리도 또 다른 시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병욱 베네딕토 신부 | 장평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사도 14,21ㄴ-27
화 답 송	◎ 저의 임금인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 2 독 서	묵시 21,1-5ㄴ
복 음	요한 13,31-33 13,34-35

성모님 당신의 보살핌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모님, 당신께 저의 수도성소를 봉헌합니다.” 필자는 수도회 입회를 결심하던 고등학교 시절 매일 등교길에 묵주 기도를 바치며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성소를 키워갔다. 당시 부모님과 떨어져 친척집에 살면서 외로움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기에 성모님을 어머니로 생각하며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여겼던 것 같다. 수도원에 입회해 생활하면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은 끝기도 후, 성당의 불이 모두 꺼지고 고요히 성모상 앞에서 홀로 기도할 때였다. 그러나 신학을 배우고 수도생활의 경륜이 쌓여갈수록 성모님보다는 예수님께 더 집중했던 것 같다. 성모님께로 나아갈수록 성모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수도 여정에서 성모님께 간절히 전구를 청했던 때가 언제인지 되돌아보면 평화로울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던 것 같다. 자신의 나약함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어머니 성모님께 기도를 청하며 용기와 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수없이 간구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성모님은 필자에게 ‘지켜보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서 어릴 때에는 성모님께서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었다. 그러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아들을 간섭하지 않으셨다. 지켜보는 사랑을 하셨다. 심지어 아들을 찾아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마태 12,48)고 반문하시며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 어머니고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얼핏 보면 어머니를 문전 박대(?) 하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다.”(마태 12,50)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모님은 그 누구보다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신 분이셨기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어머니신 것이다.

우리도 성인이 되어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성모님의 지켜보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을 배워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하느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느님을 떠난 것일 수도 있다. 간섭하는 ‘부모님의 하느님’을 넘어 ‘나의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방황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때 부모는 성당에 다니라는 잔소리보다는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한다. 날마다 미사하고 성당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집안을 돌보지조차 않고 이웃과 다툼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믿는 하느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 하느님은 성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모든 곳에 계신 하느님, 특히 사랑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기도해 주며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께서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함께하셨다. 십자가 아래에서 비탄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고통과 죽음에 함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자녀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함께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필자가 성모님을 향한 새로운 영성을 배우게 된 것은 토마스 머튼을 통해서이다. 6살에 어머니를 위암으로 잃고 홀로 성장했던 머튼 신부님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성모 신심이 더욱 각별했다. 특별히 쿠바의 성모 성지를 순례하던 중 미사 때 강렬한 하느님 체험을 한 후, 그는 사제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하고 첫 미사는 성모님을 위해 봉헌할 것을 서약하게 된다. 그는 이 체험에서부터 수도생활을 마칠 때까지 성모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살았다. 그에게 있어 성모님은 어머니요 연인이었으며, 관상생활의 스승이었다. 성모님의 아들이자 그녀에게 위로를 받고 신뢰를 드렸으며, 사랑하는 여인인 마리아에게 순수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결핍된 모성애를 성모님의 품에서 채우며 성모님과 함께 수도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다. “저의 온 삶은 변해야 합니다.”라고 성모님께 고백하는 기도문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성모님과 하나 되어 살았는지 잘 보여준다.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여, 저는 사랑 넘치는 당신의 중재와 보살핌에 저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시고, 저는 당신의 소중한 아들, 그러나 근심, 갈등, 실수, 혼란투성이인데다 자칫하면 죄를 짓곤 하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온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므로 제가 필요로 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제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자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소서.” 아멘 (Learning to Love, 360).

노래여, 아! 성가여

김진희 세레나 시조시인/ 가톨릭문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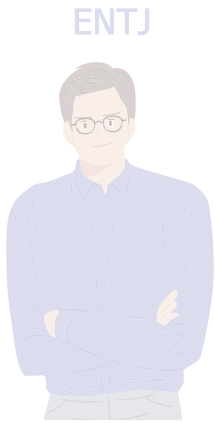
TV를 켜면 채널마다 트로트 열풍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활동이 제한되자 트로트는 시기적절하게 대박을 터뜨렸다. 재방송은 물론 가수들이 출연하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까지 섭렵하게 되었고 특정 가수에 대한 애정은 상상 이상인 것 같다. 아예 팬덤을 몰고 다니는 가수들의 행보는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 되었다. 팬 연령층의 분포도 다양하여 그들의 인기는 상한가를 치고 있는 중이다. 노랫말에 담긴 사연을 이야기하고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을 쏟아내며 호소력 짙은 감정에 시청자들은 하나가 되어 울고 웃는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일까? 그중에 나도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서늘해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하루 종일 듣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위로가 된다.

30여 년 전, 어느 날 친구가 예고도 없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신상에 변화가 있음을 직감했다. 아이 셋을 두고 이혼을 결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짐작할 뿐이었다.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라 그녀의 앞날이 걱정되었다. 그 후 새 직장을 얻게 되자 성당을 다시 나가게 되었다. 노래를 곧잘 하던 그녀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성가대였다. 성가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다고 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책과 북받치는 설움에 만감이 교차하여 한 동안 내내 눈물어린 성가를 불렀다고 한다. 성가는 마음의 치유제가 되었다. 성가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한번 일을 하면 끝장을 보는 성미라 얼마나 일에 매달렸으리라. 최근에 다시 돌아온 남편을 용서하며 여전히 성가대 활동을 하는 그녀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내고 싶다.

몇 년 전,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검은 그림자가 집안을 어둡게 했을 때, 흘러나오는 성가에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의사가 밝은 트로트를 권유했음에도 그분은 찬송가를 들으며 가사를 음미하고 있었다. 성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마음에 안식을 찾으며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성가를 부르며 차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실로 우리는 성가대의 합창에 마음을 뺏긴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아름다운 성가를 부르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예배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생각하게 한다. 때론 설교 못지않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화를 얻는다.

코로나로 인해 잘 들을 수 없었던 성가대의 합창을 기다리며 나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가를 부르는 것이 그 또한 얼마나 축복인가. 오늘도 가사에 담긴 진리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동받는 하루가 되길 기도드린다.





ESFP

ENFP

INTJ

예언豫言이나, 예언預言이나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성격유형 바뀌야 취업 되나”... 이제 MBTI도 스펙

[앵커] 성격유형을 검사하는 MBTI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기업 마케팅 등 여기저기에 쓰이고 있는데요. 재미 삼아 보는 걸 넘어, 특정 유형은 채용 안 하겠다는 기업까지 나와 논란입니다. 이젠 MBTI도 스펙이냐는 불만이 구직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성격유형검사 MBTI는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조합에 따라 성격은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몇 년 전부터 한 온라인 무료 검사가 인기를 끌었고 이제 MBTI 유형은 젊은 세대들에게, 대화의 필수 주제가 됐습니다.

기업들은 유행에 빠르게 편승했습니다. 유형별로 맞는 옷을 추천하고, 영양제 성분도 다릅니다. 인터넷에 쏟아지는 콘텐츠 중엔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채용 과정 중, 자신의 MBTI 유형을 적으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수험은행의 신입 공채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자신의 MBTI 유형과, 장단점, 적합한 직무를 연결해 설명하라 합니다. 아워홈도 지난해 비슷한 항목을 넣었습니다.

기업들은 특정 유형을 꼭 집어 우대 혹은 차별합니다. 특정 MBTI 유형은 아예 지원이 불가하다고 적기도 합니다. 주로 외향형을 선호하는데 대부분 편견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만 쓰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MBTI.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새로운 편견’과 ‘차별’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220424 JTBC 뉴스

MBTI는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만들어진 성격유형지표입니다. 4가지 범주에서 양극의 선호 경향을 따져서 -예를 들면 외향적이나, 내향적이나, 총 16가지의 성격유형 조합이 나옵니다. 자신의 성격유형이 어떤지, 어떤 장점을 가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배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편견의 빌미도 됩니다. 너는 이런 유형이니 분명 이런 거야라며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니 기업에서 일부 성격유형의 취업을 아예 차단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 ‘부분적’으로 ‘파악’한 ‘지식’을, 마치 그 사람을 ‘다’ 아는 양 써먹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를 성격유형이라는 틀 안에 한계 지어, 열린 미래가 아닌 닫힌 미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차단당한 미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이런 장악욕은 ‘미래’ 자체에까지 미칩니다.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기로 다짐한 우리는 돈이나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미신 행위를 하는 것을 바로 중단하여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신이 없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점술과 운명론에 의존하면서 팔자타령을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는 그럴듯한 말에, 또 통계학적이라고 하면서 과학을 가장하는 말에, 그리고 순전히 인간적인 확신에서 얻어진 결론들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인간의 자유 의지와 개척 정신을 무시하는 점술이나 운명론 등 온갖 종류의 미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제2과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예비자 교리교육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호기심이나 절박함, 또는 진지한 믿음(?)으로 점을 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재미 등을 이유로 든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두고 듣게 되는 것은 나를 족쇄 채웁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
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혼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
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
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하셨다.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신명 18,9-18

신명기 18장은 ‘미래’를 ‘장악’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하느님 앞에 ‘역겨운 짓’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모든 점술 행위를 배척하고 이스라엘이 걸어갈 참 길, 곧 하느님 뜻에 따른 믿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하느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간청
했다. 이에 하느님이 말했다.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
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서둘러 여행길에 올랐다. ‘세상에 널린 게 행복한 사람인데 그중 한 사람을 찾는
것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그는 곧장 궁궐로 가 왕에게 물었다. “왕이시여, 당신의 운명에 만족하십니까?” 왕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만큼 불행한 이가 또 있을까! 왕위를 노리는 무리가 사방에 깔려 있고 백성과 나라의 안위가 시시때때
로 위협받고 있어 밥 한술 제대로 넘길 수 없고 잠 한숨 편히 잘 수 없느니라. 차라리 집도 절도 없는 떠돌
이가 부럽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곧장 떠돌이를 찾아갔다.

그가 떠돌이에게 물었다. “당신의 운명에 만족하십니까?” 떠돌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하도 굶어 뱃가죽이 등가죽에 붙게 생겼고 한뼉잠을 자느라 온몸이 쑤시는데 만족이라니요! 나는 하루에
도 열두 번씩 하늘을 원망합니다.” 이번에도 헛다리를 짚은 사람은 방방곡곡을 떠돌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아니올시다’였다. 그제야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
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이때 하느님이 나타나 물었다. “아직도 네 삶이 불행하고 괴롭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
며 말했다. “아닙니다. 이제야 사람의 삶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불만족스러운
일만 생각하며 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하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아.라. 네. 운.명.은. 이.미. 바.뀌.었.다.” -천위신, 하루 30분 베이징대학교에서 인생철학을 배우다

하느님의 ‘섭리’는, 1.당신이 주재하시는 역사의 ‘안정적 흐름’과, 2.예견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함께 동
반합니다.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그분께서는, 당신 닮게 만드신 인간 또한 ‘꼭두각시’로 만들거나 인간의
역사를 숙명으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미래가 마치 정해진 양, 또는 미리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는 양 여
기는 자세는, 하느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한없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며 인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
는 것입니다. 환히 펼쳐진 시야를 가려 버리고 눈앞에 당근 하나만을 매달아 설정해 놓고 그것에만 집착해
달려 나가는 꼴입니다.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약한 자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에게는 ‘미지’이며,

용기 있는 자에게는 ‘기회’(ideal, 이상)이다. -빅토르 위고, 레 미제라블

부활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이지 않는 미래
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보이는 미래를 쥐려 합니다. 미래 장악욕이 아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열린 자세와 용기를 가진 이가, 행복합니다.



지역할 선종 사제
정순구(요한) 신부
2009년 5월 17일

본당 재정업무 지도방문

일시: 5월 18일(수)
본당: 합천/ 금산/ 칠암동/ 평거동
일시: 5월 19일(목)
본당: 거창/ 안의선교/ 함양/ 산청

교구/본당

청년 교리연수

일시: 5월 21일(토)~22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 2차

일시: 5월 22일(주일) 09:30
장소: 여좌동성당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 연수

일시: 5월 22일(주일)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5월 성모 성월 일일피정

일시: 5월 16일(월) 13:00~17: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대상: 모든 신자 참석 가능
문의: 회장 010·9399·5454

211차 ME주말 안내

일시: 5월 27일(금) 19:00~29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5월 19일(목)까지 전화 및 문자로 신청
(문자 발송-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성모술숲마을 효소 단식치유피정

일시: 6월 3일(금)~5일(주일)/
6월 17일(금)~19일(주일)
주제: “몸은 가볍게, 영은 맑게”
참가비: 20만 원(효소포함)/ 영성상담
문의: 청도 성모술숲마을 010·5613·0166

재속 프란치스코회 생태영성 특강안내

일시: 매월 둘째주 토요일
장소: 칠암동성당 대성전/ 대상: 신자 및 비신자
주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영성

강사: 김종화 알로이시오 신부(작은 형제회)
주관: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문의: 010·5230·1420, 010·5006·6254

재속 맨발 가르멜회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모임-5월 16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010·8525·1150

‘가톨릭 신자 앱’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본당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차세대 본당 양업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가칭 ‘가톨릭 신자 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사무실을 방문하셔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가톨릭 신자 앱’에 교우 여러분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기간: 5월 15일(주일)~6월 5일(주일)까지

▶참여 및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접속하여 참조 바랍니다.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후원계좌: NH농협은행 301-0293-9000-01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055·249·7121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월 21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한국외방선교회	-	-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세계최초 음향표준 이어폰
당신이 꿈꿔왔던 감동의소리를 만나보세요

SONICAST dire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sonicast>
(네이버에서 '소니캐스트'로 검색 가능)
대표 이사: 이의렬 대건 안드레아/ 055-288-3768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우리농
생명공동체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교구장 주교와 함께(Bishop's Appeal)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난민 돕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와 함께 아파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충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깃뻛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 나 거기 서있다(박노해 시) -

- ▶기간: 5월 22일(주일)~6월 4일(토)
- ▶대상: 본당, 단체, 일반 등
- ▶방법: ·기도 - 5월 22일, 29일 주일미사 보편지향기도
·2차 헌금 - 5월 29일(주일)
·후원계좌 - 농협 301-0154-1813-41
(재)마산교구천주교회
- 주관: 천주교마산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

루멘(Lumen)회 교구청 신축 기금 전달

소식



교구 루멘회(박수현 바오로 회장)는 4월 27일 교구청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건축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교구청 신축 기금으로 2천만 원을 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신축 추진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는 “2월 12일 여러 분야의 기업인들이 모여 ‘제상의 빛’이 되는 삶의 목적으로 창립된 루멘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많이 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루멘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하였다.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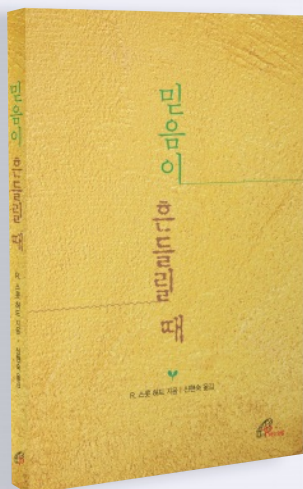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생활의 따뜻한 동행자

하느님의 선물인 믿음의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한 책이다. 신앙인으로서 할 일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한 흥미롭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실행하도록 초대한다.

이 책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느님이 계신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삶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일상으로 초대하는 실천서다. 가족, 대부모와 대자녀, 또는 다양한 형태의 그룹이 함께 각자의 처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보듬고 공감하며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데 따뜻한 동행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에도 좋은 선물이 될 듯하다.

•출판: 바오로딸 •지은이: R. 스콧 허드 •옮김: 신현숙



사랑은 공평하다-이승우 『마음의 부력』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이승우의 『마음의 부력』은 2021년 이상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다. 소설에는 죽은 큰아들, 어머니, 소설의 화자인 작은아들 내외가 등장한다. 주인공이자 동생인 성식은 말 그대로 모범생이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도 군말 없이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고, 결혼해 가정도 꾸린다. 반면 형 성준은 무엇이든 얹매이는 걸 싫어하고, 연극과 문학에 빠져 청춘을 보내고, 변변한 직장도 얻지 못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한 채 사고로 죽고 만다.

형이 죽은 후 어느 날 어머니는 불현듯 쓸 곳이 있으니 이제는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린 일이 없기에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성식 부부는 의아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그러다가 다음날 전화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어머니는 형 생전에 딱 한 번 싫은 소리를 했었다. 돈을 좀 달라는 형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이고, 이 일이 평생 마음에 남아 있던 어머니는 만이가 살아 있다는 혼몽함 속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딱 한 번, 지방 어느 소도시에서 연극을 하고 지낼 때였는데, 카페를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다. ... 제풀에 기분이 언짢아져서 아마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던 것 같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성식이 사는 거 좀 보라...... 세상에!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주인공 성식은 사랑이 언제나 공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받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형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자기처럼 편애를 받는 사람도 그 부담감이 크다고 말한다.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편애받았던 야곱 역시 형 못지 않게 공평하지 못한 사랑의 피해자였다고 하면서.

그런데 어머니의 심정을 알고 나서는,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저야 했을 짐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형의 소외감, 나의 부담감, 이 모두 어머니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이다.

상실감과 슬픔은 회한과 죄책감에 의해 사라질 수 있지만, 회한과 죄책감은 상실감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 더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사랑의 대상인 야곱이 저야 했을 마음의 짐에 대해서는 제법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주체인 리브가 저야 했을 마음의 짐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베란다의 화초들을 파랑이, 쪽쪽이, 하늘이처럼 제각기 이름을 지어 불렀다. 그 꽃의 색깔, 잎의 생김새에 맞게 이름을 부르고 공평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하느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예서가 소외되고, 야곱이 편애받고,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힘들게 산다고 해도, 하느님의 사랑의 계산법은 틀림없이 공평할 수 있어서 우리 인간은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소중한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소설의 마지막에 주인공 성식은 어머니의 전화를 어머니의 착각 그대로 형 성준인 듯이 받는다.

네, 성준이에요. 별일 없지요? ... 그런데 어머니, 지난번에 내가 말한 거요. 조건이 괜찮은 카페가 싸게 나왔다는 거. 그거 이번 주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